

2021년 2월 1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7편 1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 17절)

◎ 찬 송 / 310장(통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1장 1~9절(구약p.)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6.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종말론적 예언을 기록하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언자입니다. 다니엘은 B.C.6세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 잡혀 갔으며, 그곳에서 여러 환상과 계시를 통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중대한 예언 사역에 다니엘을 선택해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과연 하

나눔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천국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 중에서 왕궁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려야 했던 느부갓네살은 다양한 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온 정복민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관리로 세우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선택된 유다 청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자란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쌓는 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학문을 익히고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히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철 왕 카네기에게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배 한 척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밑에는 “밀물의 때가 오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통해 밀물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준비된 배는 밀물이 왔을 때 두려움 없이 힘차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그저 환경을 한탄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견디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는 지금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찾아 부지런히 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준비함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가정에서, 경제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충성하듯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 넘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 하나 이 일을 감당한다고 변화는 것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고 삶의 모습이 변화하며 이 시대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변하여 오직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로소 그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육으로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믿음으로 뜻을 확정한 사람이었습니다.

-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많은 백성들이 구입하여 먹을 수 있는 모든 식재료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

졌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려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장차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바벨론 제국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불신과 불순종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강탈한 바벨론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그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격려하고 더욱 선한 믿음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일을 택함으로 자신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당신이 허용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을 섬겼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제국 전역에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원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선행으로 행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실함의 본을 보여 줍니다. 그는 포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23장(통355)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폐 회 / 주기도문